

일본의 전기통신표준화 단체인 TTC 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기통신 표준화 조사 연구위원회 설치

한국의 표준화 단체인 본협회 (TTA) 방문 표준화 활동 증진 방안 등 논의

TTC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원인 일본이 동 지역에서 국제표준의 보급활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전기통신표준화 추진협력 체제의 확립에 아바지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기통신 표준화조사 연구위원회를 이사장의 자문 기관으로 설치했다고 동 위원회의 설치목적을 밝혔다.

동 조사연구는 금년도에 우정성의 위탁연구로 TTC가 그 연구를 수탁하게 된 것이다.

위원회의 조사연구 대상은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공동체(APT : ASIA - PACIFIC TELECOMMUNITY)의 가맹국 및 준가맹국 (26개국)들이며, 이들 나라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는 중점내용은,

①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표준화 활용 상황 및 국내 표준화 활동의 현황조사

②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표준의 활용·보급 정책에 관한 검토

③전기통신의 국제 표준화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의 협력에 관한 검토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들 위원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표준화 활용상황 및 국내표준화활동 현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활용하게 될 방법으로서는,

①관계기관으로부터의 정보수집 ②각종 관련 문헌의 수집분석 ③관계자의 초빙에 의한 의견 교환 ④현지조사 ⑤각종 세미나, 국제회의 등에 의한 정보수집·분석 등 문헌조사, 현지 인터뷰 조사, 및 각종 행사를 통한 정보수집 등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연구방법이 동원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 조사연구위원회의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30일 HIROSHI

TANAKA 우정성 통신정책국 기술정책과 계장을 비롯하여 TOKUO IIDA TTC전무, 동 조사연구위원회 부의장인 YOSHIHARU SHIMATANI (KDD소속) 그리고 동 조사연구위원회 위원인 SHUNROKU SASAKI (Fujitsu 소속)가 협회를 방문하여 협회의 이 민범 표준화국장과 한국 전자통신연구소의 박 기식 선임연구원이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서로의 관심사항 등을 협의하고 표준화 활동에서의 상호 협력 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동 위원회가 한국의 표준화 단체인 한국통신기술협회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관심사항과 서로의 입장 등을 피력한 내용을 주요 내용별로 간단히 소개해 보면.

○국제 또는 아시아지역 표준화활동에의 참가 활동 면에

서 일본은 거의 모든 표준화 기구와 모든 수준의 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CCIs레벨의 회의에는 모두 참가하며 AIC에는 회원으로, APT 와 PTC에는 guest로 참가하며, 특히 지역 표준화 기구인 TTC, ETSI, T1 기술총회에 TTA 대표단이 guest로 참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 단말기의 자유화 여부와 단말기들에 대한 유저-망 인터페이스 표준제정 단체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전화기, 팩시밀리, 데이터단말기는 규제되고 있지 않으며 이들 단말기에 대한 이용자-망 접속은 TTC에 의해 표준화 되어있는 반면 이동 단말기는 현재 규제되고 있으나 1993년에 서비스되도록 계획된 디지털 이동시스템에 대한 단말기는 비규제될 것으로 알려 졌으며 이동시스템에 대한 이용자-망 접속은 RCR(무선시스템 개발 센터)에 의해 표준화될 것이라 한다.

한국에서는 단말기의 자유화는 체신부 업무이며, 이동 무선단말을 포함한 단말기에 대한 사용자-망 접속 표준은 TTA에서 작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 표준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일본의경우는 팩시밀리, 영상회의/ 영상전화, ISUP는 표준의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ISDN과 DCME(Digital Circuit Multiplication Equipment)는 표준이 늦어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경우는 국내표준이 없는 경우나 늦은 경우에는 국제 표준을 준용하게 되며 이에 따른 표준의 해석상 모호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아시아지역에서의 표준화 활동과 관련하여서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상호연동성 있는 망의 구성 계획을 위해 국제 심포지움과 국내/국제 상호접속시도와 지역 표준화기관에 참여할 것을 밝혔고, 한국측은 상호운영성에 관한 Workshop 개최와 지역표준화기관에 참여할 계획임을 알렸다.

또한 국제/지역 표준 제정 활동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대처 방안으로 국제 또는 지역 표준화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교환이나 정보교환을 위해 1년에 한 두 차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측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그 밖의 관심사항으로

일본측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은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의 draft는 누가 만들고, 상호운용성은 누가 주관하며, 상호운용성 시험을 위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와, ISO/IEC JTC1 활동에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으며 우리측에서는 고도통신시스템 상호접속 추진회의(HATS)의 ISDN/OSI제품도입에 관한 지침을 TTC에서 어떻게 공고하는지와 일본 우정성의 JUST 표준과 TTC, RCR 등의 표준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서로 다른 표준화 단체간의 업무조정 문제와 표준화 활동에서 Upstream과 Downstream에 대한 활동단체들이 서로 다른지에 대한 궁금증을 표시하며 이에 대한 서로간의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갖기도 했다.

이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기통신 표준화 조사 연구 위원회의 표준화 활동조사는 올해는 기본적인 사항만 조사하고, 내년에는 조사대상국도 추가하여 좀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사항으로 그 대상 범위를 넓혀 조사를 완료 할 계획이며, 이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국제/지역표준제정활동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내의 대처 방안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